

# 예술, 자연과 인간 공생을 바라보다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3  
23일 강연 프로그램으로 개막  
국악·타무악 등 창작 공연 다채  
정호승·유시민 작가와 대화도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생태주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을 매개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모색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은 지난 5월부터 '그린국악'을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오후 4시)마다 선보여 왔다. 마지막 시즌을 맞아 자연과의 동반을 주제로 국악과 강연,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창작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그린국악 시즌2는 전래영아놀이, 창작 레퍼토리 및 아쟁산조 등 특집무대를 들려줬다. 이와 차별화를 꾀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23일 강연프로그램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3-당신이 답이다'로 막을 연다. 우석대 객원교수로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를 펴낸 강원국이 '결국은 말입니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8일에는 '수선화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등의 시인 정호승, 25일 한국현대사 이야기-글쓰기 노하우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무대에 오른다.

다음 달 7일에는 국악과 미디어아트 융복합 공연 '신화같은 힘살, 푸른고래 가무악회'를 보여준다. 춤과 노래, 연주와 연희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가무악회(歌舞樂會)에 '지속가능한 세계에 대한 열망'이라는 주제를 가미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춤과 타악이 결합된 타무악(打舞樂) 공연 '미래의 기억', 미디어 퍼포먼스 작품 '푸른고래', 판소리 흥보가 중 '밭타령' 대목도 올려 퍼질 예정이다. 또 '컨템포러리 연희-푸른 고래 판'은 현대 연희의 매력과 풍부한 음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작



오는 10월 예정된 가무악회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품이다. 연출은 미디어아트 라지용 작가와 임영호 감독이 맡았다.

다음 달 14일에는 여순 10·19사건 75주기를 맞아 갈라콘서트 '여순 가무악회-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도 펼쳐진다. 전 단원이 참여해 3년째 진행해 온 대규모 종합극 형태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을 주제 삼아 '또 다른 숲(희망)'을 희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린국악은 그동안 제주 4·3항쟁(75주기), 세월호 참사(9주기) 등 상흔과 슬픔을 남긴 사건을 공연화해 왔다. 특히 '여순사건'은 최근 여순 평화문학상 제정이 추진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끝으로 12월에는 '미래의 기억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억부와 창작부가 공연을 펼친다는 계획. 같은달 23일에는 성탄 특집 '국악 캐럴'도 올려 퍼질 예정이다.

한편 류형선 예술감독은 "3년간 준비해 온 레퍼토리 만큼 이번 그린국악 시즌3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건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미디어아트, 국악, 종합극 등 다채로운 표현방식을 결합해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관람료 1만 원. 문의 061-980-9955.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뮤지컬로 보는 '전래동화'

국립나주박물관 '나와라 똑딱 이야기 보따리' 유튜브 등서 공개



어린이 뮤지컬 '나와라 똑딱 이야기 보따리' 공연 장면.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혹부리 영감', '금도끼 은도끼'를 엮은 뮤지컬이 비대면으로 상영된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어린이 뮤지컬 '나와라 똑딱! 이야기 보따리'를 23일~24일 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작품은 흥부 놀부, 혹부리 영감, 금도끼 은도끼, 선녀와 나무꾼 등 아이들이 책으로 읽어본 전래동화를 한 공연에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거짓말을 한 혹부리 영감이

나 흥부를 괴롭힌 놀부를 혼내주고 착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담아 흥미롭다.

국립나주박물관 조용선 홍보담당자는 "이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래동화 뮤지컬은 동화에 나오는 나쁜 악당들을 착하게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즐거다"라며 "교육적인 에피소드는 물론 뛰어난 작품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상상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1-330-781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고 선물 받고

광주여성재단,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은 나의힘' 출간 이벤트

지난 6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경례-여성가족재단)이 출간한 구술집 '시장은 나의 힘'은 6인의 여성상인 생애사가 기록돼 있다. 대인, 서방 시장에서 45년간 장사한 한순덕씨를 비롯해 박수복(양동시장, 식당), 박금자(서방시장, 방앗간), 구순자(남광주시장, 수산업), 정명순(양동시장, 한복), 문경자(말바우시장, 과일노점상) 씨 이야기 기록 담았다.

이를 기념하고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을 축전하기 위해 출간 이벤트를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시장, 어디까지 가봤나?' 챌린지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개인 SNS에 해시태그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명을 선정해 장바구니, 전통시장 단골밥상(파전, 주먹밥, 인삼튀김, 흥어무침 등)을 증정한다.

아울러 '나는 단골이다' 이벤트는 양동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서방시장, 말바우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내 단골가게가 있는 시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단골가게 사진과 자랑, 단골 이유 등을 다음 달 4일까지 보내면 13명을 선정해 전통시장 상품권, 장바구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



(010-3223-4500).

한편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달 12일(오후 4시) 양동전통시장 옥상정원에서 '시장은 나의 힘' 구술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의 시간간격의 의미와 경험을 나누고 출간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다.

김경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40~50여 년 시장 상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지역 문화유산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자원 '시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온다

조계종 대중사 영명스님, 신행업서 모음집 '소소한 기쁨' 출간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온다. 일상의 삶이 그저 대수롭지 않다고 하지 말라. 간소한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 오늘 지금 여기 순간순간의 현존함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에 눈뜰 때는 너무나 늦을지 모른다.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 사람이 쌓여감을 지켜보자."('소소한 기쁨' 중에서)

조계종 대중사인 영명스님의 신행업서 모음집 '소소한 기쁨'(영경출판사)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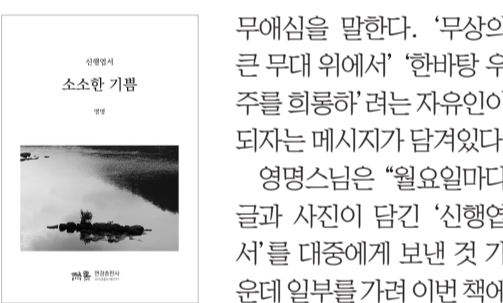
이번 책은 오랜 세월 선 수행과 봉사를 해온 신행선원 영명스님이 전해주는 금언으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스님은 월요일 아침마다 귀감이

될만한 글과 사진을 곁들인 '신행업서'를 대중에게 보냈는데 그 중 일부를 이번에 책으로 묶었다.

또한 스님은 경전과 선사어록, 인문학 서적 등을 인용하고 영명스님이 사유한 글을 시적 형식으로 풀어 소견을 담았다. 사진은 주로 신행선원 주변의 꽃이거나 여행 중에 찍은 것이 대부분이다. 작가의 그림이나 서예도 작품도 들어있는데 예술에 조예가 있는 스님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책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글도 많다. 타인을 향한 자비행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스님은 자연의 일원으로 무아로 사는 삶과



무애심을 말한다. '무상의 큰 무대 위에서' '한바탕 우주를 희롱하'려는 자유인이 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영명스님은 "월요일마다 글과 사진이 담긴 '신행업서'를 대중에게 보낸 것 가운데 일부를 가려 이번 책에 수록했다"며 "미력하나마

이 책이 자기다움으로 무위의 고요와 함께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운수남자로 신행회원과 보현행원 품을 읽고 참선하면서 25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삼락사 스님께 선지를 배웠고 법정 스님께 '신화엄경합론'을 배웠다. 지금까지 '보현행원품 차담', '무애춤을 추련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